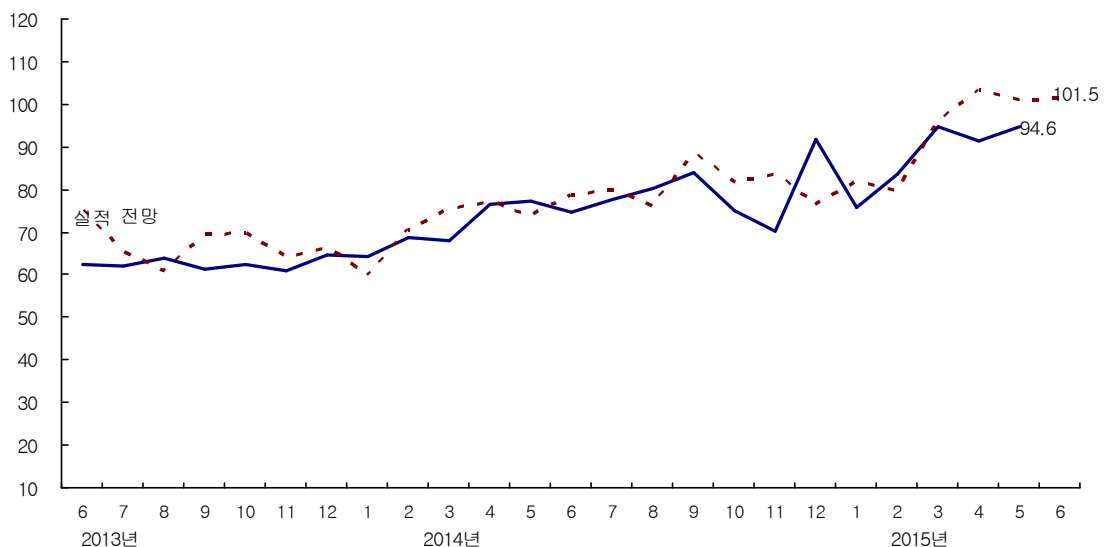


# 2015년 5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5월 CBSI 3.2p 상승한 94.6 기록  
5년 6개월 내 최고치 기록했던 지난 3월 수치에 근접

- 2015년 5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3.2p 상승한 94.6을 기록함.
  - － CBSI는 지난 2월 이후 주택경기 회복, 계절적 요인 등의 영향으로 2개월 연속 상승해(11.4p 상승) 3월에는 5년 6개월 내 최고치인 94.9를 기록했음. 그러나, 4월들어 그동안 지수 상승에 따른 통계적 반락 효과가 작용해 전월비 3.5p 하락했음.
  - － 5월 들어 CBSI는 다시 전월비 3.2p 상승해 5년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3월 수치에 근접함.
  - － 이는 5월에도 주택경기가 신규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여전히 양호한 흐름을 지속한 가운데, 신규 공사수주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 － 실제로 5월 신규 공사수주 지수가 기준선(100.0)을 상회한 104.8을 기록해 신규 공사수주가 전월보다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더 많아 전체 CBSI의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음.
  - － 종합적으로 건설기업의 체감경기 침체 상황은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CBSI 수치가 아직 기준선(100)에는 못 미쳐 건설기업의 체감경기가 호황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는 없음.

< 건설경기 BSI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및 중소기업 지수가 상승한 반면, 그 동안 상승폭이 컸던 중견업체 지수는 비교적 크게 하락함.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비 7.1p 상승한 115.4를 기록하여 6개월 연속으로 기준선을 상회하면서 3월 수준을 회복하였음. 지수가 6개월 연속으로 기준선을 상회한 것은 지난 2005년 2월~7월의 6개월 연속 상승 이후 처음으로서 대형업체의 체감경기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비 10.4p 하락하여 84.2를 기록했음. 3월에 103.1로 기준선을 상회한 이후 2개월 연속 비교적 크게 하락하여(18.9p 하락), 중견업체의 체감경기 회복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비 14.1p 상승한 82.0을 기록했음. 3개월 연속 상승으로 동기간 동안 28.3p 상승하여 전체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였음. 82.0은 2010년 8월에 84.5를 기록한 이후 4년 9개월만의 최고치임. 단, 지수 자체는 여전히 대형, 중견업체 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함.

< 규모별 · 지역별 건설경기 BSI 추이 >

| 구 분         |    | 2014년<br>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015년<br>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6월<br>전망 |
|-------------|----|-------------|------|-------|------|------|-------|-------------|-------|-------|-------|-------|-----------|----------|
|             |    |             |      |       |      |      |       |             |       |       |       | 실적    | 전월<br>전망치 |          |
| 총 합         |    | 77.7        | 80.2 | 83.9  | 74.9 | 70.4 | 91.7  | 75.8        | 83.5  | 94.9  | 91.4  | 94.6  | 101.2     | 101.5    |
| 별<br>모<br>별 | 대형 | 100.0       | 92.3 | 108.3 | 92.3 | 92.3 | 100.0 | 100.0       | 100.0 | 115.4 | 108.3 | 115.4 | 125.0     | 123.1    |
|             | 중견 | 75.8        | 83.3 | 80.0  | 78.8 | 70.0 | 97.0  | 71.9        | 90.6  | 103.1 | 94.6  | 84.2  | 94.6      | 89.5     |
|             | 중소 | 53.8        | 62.5 | 59.6  | 50.0 | 45.1 | 76.0  | 51.9        | 56.0  | 61.5  | 67.9  | 82.0  | 80.8      | 89.8     |
| 지<br>역<br>별 | 서울 | 90.2        | 89.2 | 95.4  | 85.4 | 85.8 | 94.4  | 86.2        | 98.0  | 107.9 | 102.5 | 103.0 | 112.5     | 108.0    |
|             | 지방 | 58.8        | 67.4 | 67.0  | 59.6 | 47.5 | 87.9  | 60.7        | 62.2  | 75.1  | 75.6  | 82.6  | 85.0      | 92.4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15년 6월 CBSI 전망치는 5월 실적치 대비 6.9p 높은 101.5를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높은 것은 건설업체들이 6월에는 건설경기가 5월보다 좀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6월 전망치도 기준선을 상회하여 전망치는 3개월 연속으로 기준선을 넘었음. 다수의 건설업체가 향후 건설경기 회복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하지만 업체 규모별로는 다소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음. 중견업체의 전망치는 지난 5월의 95.6에서 6월에는 89.5로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체는 5월의 80.8에서 6월에는 89.8로 상승해 중소기업체의 체감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더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5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 업체가 전월보다 0.5p 상승한 103.0, 지방 업체가 6.9p 상승한 82.6을 기록함.
  - 비록 서울업체 지수가 전월보다 하락하였지만, 기준선(100.0) 이상으로 여전히 양호한 상황임.
  - 한편, 지방업체 지수 82.6은 2003년 10월의 83.1 이후 최대치로 지방의 체감경기 또한 침체수준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됨.

### 2015년 5월 신규 공사수주 지수 104.8 기록해 기준선 상회

- 2015년 5월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104.8을 기록해 기준선(100.0)을 상회하며 양호한 모습을 보임.
  - 신규 공사수주 지수가 기준선(100.0)을 상회했다는 것은 5월 신규 공사수주가 전월보다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기업보다 더 많다는 의미임.
- 공종별로 신규 공사수주 지수를 살펴보면, 토목공종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가 99.3을 기록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주택공종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96.8을 기록했고, 비주거 건축공종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98.2를 기록했음.
  - 건축공종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가 토목공종 지수에 비해 소폭 수치가 낮았으나 큰 차이는 없었음.
  - 또한, 모든 공종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가 대체적으로 기준선(100.0)에 근접해 신규 공사수주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기업 규모별로는 신규 공사수주 지수를 살펴보면, 대형기업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가 130.8을 기록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대형기업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를 공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공종의 지수가 기준선(100.0)을 상회했으나, 특히 토목공종 지수가 130.8을 기록해 가장 양호했음.
- 올해 연초 발주가 부진했던 공공 토목공사 발주가 본격화되면서 대형기업의 신규 공사수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중견기업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기준선(100.0)에 근접한 94.7을 기록했고, 중소기업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85.7을 기록해 기업 규모별로 비교할 때 가장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신규 공사수주 BSI >

| 구 분 |    | 종합    | 규 모   |       |      | 지 역 별 |      |
|-----|----|-------|-------|-------|------|-------|------|
|     |    |       | 대형    | 중견    | 중소   | 서울    | 지방   |
| 전체  | 실적 | 104.8 | 130.8 | 94.7  | 85.7 | 118.0 | 85.3 |
|     | 전망 | 104.5 | 123.1 | 94.7  | 93.9 | 112.0 | 93.9 |
| 토목  | 실적 | 99.3  | 130.8 | 83.8  | 80.0 | 111.8 | 81.1 |
|     | 전망 | 92.8  | 107.7 | 83.8  | 85.7 | 97.3  | 86.8 |
| 주택  | 실적 | 96.8  | 107.7 | 100.0 | 80.4 | 102.5 | 88.5 |
|     | 전망 | 103.7 | 115.4 | 108.3 | 84.8 | 110.6 | 93.5 |
| 비주택 | 실적 | 98.2  | 115.4 | 94.6  | 82.0 | 104.9 | 88.1 |
|     | 전망 | 88.2  | 92.3  | 86.1  | 85.7 | 88.0  | 88.3 |

주 : 실적은 2015년 5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6월 예측지수임.

- 한편, 2015년 6월 신규 공사수주 전망지수는 104.5를 기록해 5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기준선(100.0)을 상회함.
- 공종별로는 주택공종의 전망지수가 103.7을 기록해 가장 양호했고, 기준선(100.0)을 상회해 건설기업들이 향후 주택수주 증가를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토목공종의 전망지수는 92.8, 비주거용 건축공종의 전망지수는 88.2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비주거용 건축공종의 전망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건설공사 기성 지수 103.3 기록해 기준선 상회,  
수주잔고 지수는 94.7 기록**

- 5월 건설공사 기성 지수는 중견 및 중소기업 지수가 양호한 모습을 보여 기준선(100)을 상회한 103.9를 기록함.
  - － 중견과 중소기업의 건설공사 기성 지수가 각각 107.9, 102.0을 기록해 기성실적이 전월보다 증가했다고 응답한 업체가 더 많았음.
  - － 대형업체의 건설공사 기성 지수는 100.0을 기록해 중견, 중소기업 지수보다는 낮았으나, 기준선을 하회하지는 않아 비교적 양호했음.
  - － 다음 달 전체 건설공사 기성 지수 전망치도 기준선을 넘어선 109.7로 5월에 이어, 6월에도 건설공사 기성이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한편, 5월 수주잔고 지수는 기준선(100)을 하회한 94.7을 기록해 수주잔고 상황이 전월보다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 이는 업체 규모별로 대형업체의 수주 잔고 지수가 115.4을 기록해 양호했으나, 중견과 중소기업의 지수는 각각 81.1과 86.0을 기록해 부진했기 때문임.
  - － 중견 및 중소기업의 경우 대형업체와 달리 신규로 수주해 들어온 물량보다 기성으로 진척된 물량이 더 많은 상황으로 판단됨.
  - － 한편, 6월 전체 수주잔고 지수 전망치는 92.7로 수주잔고가 소폭 악화될 전망이다.

**< 건설공사 기성 및 수주잔고 BSI >**

| 구 분     |    | 총합    | 규 모 별 |       |       | 지 역 별 |      |
|---------|----|-------|-------|-------|-------|-------|------|
|         |    |       | 대형    | 중견    | 중소    | 서울    | 지방   |
| 건설공사 기성 | 실적 | 103.3 | 100.0 | 107.9 | 102.0 | 107.2 | 97.5 |
|         | 전망 | 109.7 | 123.1 | 107.9 | 95.9  | 116.5 | 99.4 |
| 수주 잔고   | 실적 | 94.7  | 115.4 | 81.1  | 86.0  | 104.9 | 79.6 |
|         | 전망 | 92.7  | 123.1 | 78.4  | 73.5  | 103.7 | 76.7 |

주 : 실적은 2015년 5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6월 예측지수임.

- 한편, 5월 자금 지수를 살펴보면 공사대금 지수가 102.1로 기준선 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자금 조달 지수는 92.3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공사대금 지수는 전월보다 5.5p 증가한 102.1을 기록함. 대형업체가 115.4로 매우 양호한 가운데 중견과 중소 업체가 각각 97.3, 92.0을 기록해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공사대금 상황이 다소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자금조달 지수는 전월보다 8.0p 증가한 92.3을 기록함. 비록 지수가 전월보다 개선되었지만, 기준선 미만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업체 규모별로 대형업체가 107.7로 양호했으나, 중견과 중소 업체가 78.4, 90.0을 각각 기록해 이들 업체의 자금조달 상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대형과 중소업체의 자금조달 지수는 전월보다 개선된 반면, 중견업체의 지수는 전월보다 10.5p나 감소해 5월 중견업체의 자금조달 상황이 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자금 BSI >**

| 구 분 |            |    | 종합    | 규 모 별 |      |      | 지 역 별 |      |
|-----|------------|----|-------|-------|------|------|-------|------|
|     |            |    |       | 대형    | 중견   | 중소   | 서울    | 지방   |
| 자금  | 공사대금<br>수금 | 실적 | 102.1 | 115.4 | 97.3 | 92.0 | 109.6 | 91.5 |
|     |            | 전망 | 95.3  | 107.7 | 89.2 | 87.8 | 98.4  | 91.4 |
|     | 자금조달       | 실적 | 92.3  | 107.7 | 78.4 | 90.0 | 97.5  | 84.3 |
|     |            | 전망 | 88.9  | 100.0 | 84.2 | 81.3 | 91.0  | 86.6 |

주 : 실적은 2015년 5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6월 예측지수임.

끝